

# 고생한 수험생들 문화힐링 하세요

광주문예회관, 클래식·연극 50% 할인  
 광주시립극단, 21~23일 '세자매'  
 광주시립미술관 23일 힐링음악회  
 동산아트홀 다음달까지 '택시안에서'

문화생활로 힐링하며 수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올해 2020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눈길을 끈다.

광주문예회관에서는 클래식, 영화음악 콘서트,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수험생 등 학생은 좌석 등급에 상관없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먼저, 21일 오후 7시30분 대극장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후기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을 무대에 올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솔로 호른리스트 카르스텐 캐리 더핀이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3번'을 협연하며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서곡도 만난다. (학생 R석 1만 5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광주시립극단의 '세자매' (21일-23일)는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인 이 작품은 1901년 모스크바 예술극장 초연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연극, 영화, 드라마 등으로 제작됐다. 19세기 말 러시아 중산층의 무기력하고 음울한 삶을 그리면서 세 자매 올라, 마샤, 이리나와 그들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꿈과 이상, 사랑과 배신과 좌절을 담았다. (학생 5000원, 21-22일 오후 7시30분, 23일 오후 3시, 7시30분)

27일(오후 7시30분) 소극장에서는 문예회관 기획공연으로 해설과 연주를 통해 쉽고 재밌게 클래식, 오페라, 영화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이태리 여행'을 만나볼 수 있다. 이탈리아를 주제로 그 나라의 문화를 음악과 함께 풀어낸다. 방송인 정서영씨의 해설로 진행되며 소프라노 김선자, 피아노 권한숙, 클레프 파르티에 헨델의 '올게 하소서', 엔니오 모리코네 '러브 에페어', 푸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등을 들려준다. (학생은 1만원)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23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 '수험생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개최한다.

공연에는 바리톤 김재섭, 소프라노 유형민, 전자바이올린 연주자 강명진이 무대를 꾸민다. 레퍼토



극단 청춘의 '여자만세'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클레프파르티

리는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그대와 함께 떠나', '입술은 침묵하고' 등이다. 또 세계 비보이대회 3위에 입상한 '잭팟크루(Jackpotcrew)'가 국악, 성악 등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합해 선보이는 '춤으로 들어요' 무대를 마련했다.

연극 '택시안에서'는 12월 29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쾌활하고 유쾌한 택시운전자 민수와 하영, 소희 두 남녀의 운명적 만남을 그린 연극이다. 헤어연 연인을 붙잡으려 공황으로 가는 주인공 하영이 75분 동안 택시 안에서 겪는 일을 다룬다. 의미심장한 택시기사 민수와 자신에게 주어진 반전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하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속도감 있는 전개와 코믹한 상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공휴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관람료는 전석 3만원(학생 30% 할인).

광주시 동구 호남동 예술극장 통에서는 '겨울연극축제-팜(Fam) 시리즈 2019'가 진행중이다. 28일-30일에는 극단 청춘이 '아들은 엄마의 나이를 모른다'를 무대에 올리며 이어 '여자만세' (12월

24일-28일)을 선보인다. 극단 바람꽃은 '침대 밑에 아버지가 산다' (21일-23일)을 준비했으며 극단 우연은 '수상한 편의점' (12월7일)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12월 12일-14일에는 축제에 초청된 대구 극단 고도가 '보고싶습니다'를 무대에 올린다. 모든 공연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12월25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전석 2만원(청소년 1만 5000원).

오페라갈라콘서트 '영화 속 아리아를 좋아하세요?'는 12월7일 오후 7시30분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은 (사)빛소리오페라단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리아 곡에 해설을 가미해 관객들의 곡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공연의 해설은 소프라노 박미애가 맡았으며 영화 '파리넬리'에 등장하는 오페라 '리날도' 중 '올게 하소서'를 비롯해 12곡의 아리아에 대한 해설을 풀어낸다.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천현주, 테너 장호영, 이원용, 바리톤 김대수, 소프라노 윤희정, 장희정 등이 오른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시민자유대학 'KNOW JAPAN...' 23일 광주극장서 개최

시민자유대학(학장 조운호)이 나람영화캠프 'KNOW JAPAN: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과 시민운동을 23일 오후 3시 광주극장과 영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일본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강연과 다

큐멘터리 상영, 감독과의 대화로 구성됐다.

주제 강연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서진영 강사가 진행한다. '아직 오지 않은 '광복'-'여자근로정신대'를 주제로 열리는 강연에서 서 씨는 근로정신대의 배경이었던 일본의 참략전쟁에서부터 근로정신대의 정확한 용어와

동원의 구체적인 행태 등에 대해 강의한다.

오후 4시부터는 광주극장에서 '나고야의 바보들'은 근로정신대 피해 실재를 세상에 알리고,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법적투쟁을 들고 있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나고야의 바보'들을 상영한다. 영화 상영 후에는 영화를 찍은 임용철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동남아 지역 이주 예술적 관점서 살피다

ACC, 내년 2월 23일까지 '이주서사'  
 23일 개막식서 렉처·토크, 퍼포먼스

'아시아 지역 이주의 역사를 만나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이주의 다양한 상황과 양상을 예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국제교류협력전시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주한독일문화원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아시아 지역 이주에 대한 예술가들의 다양한 서사를 소개하는 국제교류협력전시 '이주 서사(Migration: Speaking Nearby)'를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2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일문화원과 손을 잡고 지난해부터 진행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이주 서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자리로 이주에 대한 예술가들의 다양한 관점과 접근을 제안한다.

전시 타이틀 '가까이에서 말하기'(speaking nearby)는 영화 제작자이자 작가, 작곡가, 학자인 트린 티 민하의 인터뷰에서 차용한 문구로, 이주 현상을 거리를 두고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주제에 매우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간접적 말하기를 의미한다.

전시에는 아시아 9개 도시(서울, 광주, 베이징, 홍콩, 울란바토르, 타이베이,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9명의 큐레이터와 21개 팀·작가들은 그 동안 이주에 대한 개별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왔고 이번에 결과물을 선보이게 됐다.

베이징, 울란바토르, 홍콩 전시에 이어 개막하는 이번 전시는 세 곳에서 전시됐던 작품들과 함께 아시아 예술가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 제작한 작업도 선보인다.

23일에는 '이주 서사: 렉처 & 토크'와 오프닝 퍼포먼스가 개최된다. 이날 빈, 타이베이, 요코하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준 양의 렉처 퍼포먼스 '옐로우(Yellow)', 독일 미디어 및 문화 연구자 나나 하이텐라이히의 '이주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 및 참여 작가들의 패널 토크가 진행된다.

현대 무용과 전통 무용의 언어 사이에서 작업을 이어온 작가 임지애는 전시 작품 '산, 나무, 구름, 호랑이 ver.0'과 연계해 베를린의 한국 무용동호회인 가야 무용단과 함께 신작 퍼포먼스를 전시 오프닝에서 선보인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쥬스비에브 킷 작 '청자 행상: 우리의 수신기는 작동하고 있다'

## 브람스가 남긴 말과 글, 피아노 연주와 만나다

김정아 낭독콘서트 25일 금호아트홀

작곡가가 남긴 글과 곡을 통해 그들의 삶과 예술성,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아의 낭독콘서트'가 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2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가 남긴 말과 글, 주고받은 편지 속의 이야기를 피아노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연주회는 베토벤을 시작으로 슈베르트, 브람스로 이어지는 기획 시리즈 세 번째 순서다.

브람스가 직접 남긴 편지 한 통과 글귀 한 줄을 통해 작곡가가 처했던 상황과 감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어떤 해설보다도 좋은 음악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김 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간주곡 작품번호 117'과 '작품번호 118중 5번과 6번', 브람스의 눈물이라 불리는 '현악 6중주 제2악장',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운명의 노래'를 피아노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위대한 음악가의 편지'라는 주제로 지난 2018년 낭독콘서트를 처음 시작한 김 교수는 네 번째 이야기로 슈만과 클라라의 삶과 음악을 준비하고 있다.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모던스타일**    **Modern!**

**클래식스타일**    **Classic!**

**지중해스타일**    **Mediterranean Sea!**